

< 손재석의 기출 분석 : 국가직 7급 >

출제 : 손재석 교수	수험번호 ()	성명 ()	총 소요시간: 분
-------------	-------------------------------	-----------------------------	--------------

이번에 남부가 노랑진 최초로 7급 과외식 연강반을 개설합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1인의 선생님이 10인의 학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특히 실력이 많이 부족하나 방법을 모르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설명회 : 8월 3일 (일) 3시 / 8일 (금) 7시 / 17일 (일) 3시 / 24일 (일) 3시 / 29일 (금) 7시 [세부 일정은 남부 홈페이지 참조]

● 이벤트 : 다양한 교재 및 할인권 추첨 + 선생님 직접 상담]

총평 : 안녕하세요 남부 과외식 연강반을 담당하고 있는 손재석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무난한 시험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독해가 잘 안 읽히는 부분이 많아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에 개별적인 특징을 논해보겠습니다.

1. 어휘

어휘는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analogous = similar, cover, longevity, substantial, hesitate, quality, deliberate 등이 답이 되었습니다. 단지 독해 지문 속에 빈칸 2개를 낸 문제가 나와 답을 찾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문법

7급의 상징처럼 된 영작 3문제는 이번에도 그 틀을 유지했습니다. 영작의 난이도는 중급 정도였지만 survive을 자/타동사로 구별한 것은 새로웠습니다. 영작을 제외한 다른 문법 문제는 현재분사/과거분사를 구별하는 문제로 3문제가 구성되었습니다.

* 참고로 분사의 구별은 해석과 함께 뒤의 목적어 유

무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익혀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eg. be -ing 목적어 있음 / be p.p. 목적어 없음 / 명사 -ing 목적어 있음 / 명사 -ed 목적어 없음]

3. 독해

전체적으로는 무난했지만 ‘군비, 체스, 판타지, 1000 시간’ 문제 등은 단어가 생소해서 잘 안 읽히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전 영역에 걸쳐 출제가 되는 것이 7급이니 적어도 중요한 ‘의료, 경제, 신체 건강’ 등의 영역은 독해 어휘를 향상시켜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생활영어

특별한 이디엄이나 구동사가 출제되지 않아 가장 쉽게 나온 부분입니다. 별다른 무리 없이 풀어낼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일정을 거치신 여러분... 결과에 상관없이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디 최고의 결실을 맺으시기 바라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손재석 드림

< 손재석의 기출 분석 : 국가직 7급 >

출제 : 손재석 교수

01. 어휘 refund 환불 / doublecheck 재확인하다

해설 빈칸 바로 뒤의 헛걸음을 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에서 힌트를 받을 수 있다. ① : (오시겠어요?) ② : (색상이 마음에 드세요?) ③ :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④ :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정답 ④

해석 A: 블랙 클리너즈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B: 네, 제 정장이 다 되었는지 확인해주시겠어요?

A: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B: 빌리 잭슨입니다.

A: 성함을 기억합니다. 다 된 거 같아요.

B: 다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헛걸음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A: 짚은 회색이죠?

B: 맞습니다.

A: 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B: 감사합니다.

02. 어휘 make a mess 엉망으로 만들다 / bark 짖다

해설 주차와 애완동물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빈칸에도 이에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을 것이다. ① : (여기에 주차해도 되겠습니까?) ② : (여기에 오랫동안 사셨어요?) ③ : (주변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④ : (규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해도 좋을까요?)

정답 ④

해석 A: 실례합니다. 이 아파트에 새로 이사 왔어요. 제반규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B: 네 물론이죠.

A: 우선 주차에 대한 건데요. 건물 뒤에 차를 주차해도 괜찮습니까?

B: 물론이죠.

A: 그리고 거기에 손님이 주차해도 있죠?

B: 저기, 손님은 뒤편에 주차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손님들은 앞면의 외부인 주차 지역을 이용해야 하세요.

A: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B: 고양이는 허용되지만 강아지는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개는 주변을 다 어지럽히고 짖어서요.

A: 이해합니다.

B: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A: 지금은 없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03. 어휘 unnoticed 주목되지 않는 / wear 닳다 / illegible 읽기 어려운 /

해설 ① :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콘서트가 확실히 완료되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 미래완료(will have p.p.)가 사용되었다. ② :

go가 뒤에 형용사 보어(unnoticed)를 취한 2형식 동사로 사용된 경우이다. ③ : 선행사(coin)과 뒤에 완벽한 절을 연결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 --> whose ④ : so 형 a 명사 that ... (너무 ~해서 ...하다) / be no good -ing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석 ① 지금부터 2시간이면 홀이 비워질 것입니다. (그때면) 콘서트가 끝났을 거예요.

② 실험이 그렇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을 문제를 확인하도록 돕는다.

③ 경찰이 날짜가 닳아서 읽기 어려운 옛 동전을 발견했다.

④ 톰의 결정이 단호해서 그를 설득하려 해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04. 어휘 mercy killing 안락사 / restriction 제한 / undergo 겪다 / unbearable 참을 수 없는 / suffering 고통 / remission 회복, (고통 등의) 완화, 용서 / physician 의사

해설 ① : the netherlands는 단수로 취급되는 고유명사이다. ② : those는 (~하는 사람들)로 해석되며 주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로 자주 사용된다. ③ : 뒤에 목적어(unbearable suffering)가 있는 것으로 보아 수동태로 쓸 수 없다. --> must be undergoing ④ : 특정된 것이 아닌 임의적인 두 번째 의사이므로 서수 앞이라도 정관사 대신 부정관사가 사용되었다.

정답 ③

해석 비록 엄격한 제한이 있긴 하지만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죽기 위해 의료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의사와 환자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의사의 조언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05. 어휘 garage 정비소 / overly 지나치게 / gadget (기계나 전자) 장치

해설 ① : 분사구문으로서, (being) unable to do anything에서 being이 생략된 구조이다. ② : 자동차는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되는 것이므로 수동태로 써야 한다. --> was repaired ③ : come to the realization (깨닫게 되다) ④ : 2형식 동사 become의 보어로 쓰인 형용사(dependant)와 이를 수식하는 부사(overly)이다.

정답 ②

해설 자동차 정비소에서 수리를 받는 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어디도 갈 수 없자, 나는 갑자기 기계와 장비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06. 어휘 supervision 감독 / uphold 유지하다, 관리하다 / diplomatic 외교의

해설 ① : 앞의 명사(chanc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이다. ② : 장소 선행사를 취하는 관계부사로서, 뒤에 빠진

게 없는 완벽한 절을 취한다. ③ : from A to B의 구조이다. 이때 to -ing의 형태로 병치가 되어 있다. ④ : 사업과 절차에 ‘관련된’ 것이므로 수동의 느낌을 가진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 involved

정답 ④

해설 공무원 경력은 매일 이루어내는 일이 세상에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행을 시작할 기회가 될 것이다. 미국 사업체들의 무역 기회를 늘리고, 인권 문제를 모니터하는 것, 그리고 경영 감독을 제공하는 것까지, 당신은 간접적으로 외국의 정책 문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국 국무부의 외교 노력을 지원할 때 관련된 사업과 절차를 관리하고자 본인이 가진 기술을 공직에서 사용할 수 있다.

07. 어휘 expose 노출시키다 / boost 촉진하다 / uptake 흡수, 섭취 / observational 관찰의 / acute 급성의 / chronic 만성적의 /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의 / supplement 보충 / so-called 소위 / diabetes 당뇨병 / cardiovascular 심장 혈관의 / colorectal 결장직장의 / replicate 복제하다, 반복하다 / randomize 무작위로 고르다 / ward off 막다, 물리치다 / at risk 위험에 처한 / deficiency 결핍

해설 비타민 D의 효과에 대해 논한 글이다.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는 실험도 있으나 그것이 모든 실험에서 일반화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요지이다. ① : (비타민 D를 섭취한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② : (건강한 사람들도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할 필요가 있다.) ③ : (비타민 D는 질병을 예방하는 면에서 전에 믿어진 것만큼의 효과는 없을 수도 있다.) ④ :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보충제를 먹을 필요가 있다.)

정답 ③

해설 종종 ‘sunshine vitamin’으로 알려진 비타민 D는 피부가 태양에 노출되었을 때 몸 안에 만들어진다. 비타민 D는 칼슘과 뼈 형성을 위한 섭취를 촉진시키고, 낮은 비타민 D와 높은 급성, 만성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제안한 임상실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인과관계를 밝혀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과연 비타민 D의 보충이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많은 실험이 행해졌다. 프랑스 리옹에 있는 International Prevention Research Institute의 Phillip Autier가 이끄는 연구팀은, 암이나 당뇨병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포함하는 소위 non-bone 건강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D의 영향을 조사하면서, 수백 가지 임상실험과 의학적 실험을 통해 나온 자료를 분석했다. 그들은 심혈관 질환, 당뇨, 그리고 결장암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보여진 높은 비타민 D의 효과가 참가자들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무작위로 선택된 실험에서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08. 어휘 avidly 열렬하게 / territory 영토, 영역 / infuse 주입하다 / around the clock 24시간 내내 / detonator 뇌관 / avalanche 눈사태, 쇄도 / revolutionary 혁명가 / adversary 적

해설 ① : 1972년에 9살에 불과했으므로 라이벌이라 보기 어렵다. ② : 1985년에 챔피언이 된 것은 맞으나 4년이 더 걸려서

야 Fischer의 기록을 깼다. 따라서 1989년이라야 옳다. ③ : (Fischer는 모든 체스 게임에 최선을 다했다.) ④ : 제일 마지막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즉, 마지막 문장에 Fischer의 적수조차 그의 게임에 감탄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정답 ③

해설 1972년 Bobby Fischer가 Boris Spassky와 세계 챔피언을 놓고 겨룰 때, 나는 소련의 고향 마을 클럽에서 경기를 하는 9살짜리 아이였다. 나는 열심히 게임을 지켜봤다. 1970년대에 내 경기력이 좋아지자 코치가 발전을 기록하고 목표를 세울 차트를 만들었다. 2500 이상의 등급이 그랜드 마스터였다. 2600은 톱 10에 들어갈 정도이고, 2700은 세계 챔피언의 영역이었다. 그리고 그 이상을 기록한 것이 Boris Fischer였으며, 그의 가장 좋은 기록은 2785였다. 나는 1985년에 세계 챔피언이 되었지만 Fischer의 기록을 깨는 데는 4년이란 긴 시간이 더 걸렸다. 게임을 지배한 것은 체스 게임을 하던지 안 하던지 Fischer의 태도였다. Fischer 전에는 아무도 모든 게임에 죽을힘을 다해 모든 체스 게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누구도 하루 종일 체스 실력을 더 늘리는 연습을 하고자 하지 않았다. 하지만 Fischer는 그 연습을 했고, 수많은 새로운 체스 아이디어를 만드는 뇌관이 되었으며, 혁신이 늘 진행형인 혁명가였다. Fischer의 전성기에는 그의 적들조차 그의 게임에 감탄했다.

09. 어휘 lenient 관대한 / discipline 훈계, 규율 / address 다루다 / boundary 경계선 / permissible 허용할 수 있는 / easygoing 느긋한, 너그러운 / get away with (벌을) 교묘하게 피하다, 빠져나간다

해설 관대한 선생님들의 장점을 언급한 후, 단점에 대한 언급을 시작하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정답 ②

해설 학생들이 인정받고, 안정감을 느끼며, 자유롭게 탐구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학습에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훈육의 문제도 조명되어야 한다. 선생님은 학습에 편안하고 오픈된 환경을 유지하는 한편, 어디까지 학생들의 행동이 허용되는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A) 너그러운 성격을 가진 선생님들은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만드는데 효과적이다. (B) 그렇지만 너무 관대하면, 중대한 훈육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어린 학생들은 항상 얼마나 자신들이 벌을 빠져나갈 수 있는 지를 시도해 본다. 그리고 친절하고 의견을 수용하려는 선생님은 금방 교실이 엉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C) 엄격한 성격과 교수법을 가진 선생님들은 보다 나은 교실의 훈육법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그 방식을 몰아붙이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D) 학생들이 실수를 할 때, 규칙에 따라 너무 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학생들의 참여를 막는 경직된 환경을 만든다. 이는 특히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 앞에서 학생을 무안하게 할 때 더 그러하다.

10. 어휘 mountainous 산악의 / longevity 장수 / security 안전 / innovation 혁신 / loyalty 충성

해설 본문의 ‘live a long time, long life’ 등이 장수에 대한 글임을 알게 해준다.

정답 ①

해석 사람들의 수명이 긴 것으로 유명한 곳이 세계에 여러 군데 있다. 이 지역들은 보통 산악 지역이며,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의사, 과학자, 그리고 공중 보건 전문가들은 종종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알고자 이 지역들을 방문한다. 전문가들은 장수의 비밀을 현대 사회에도 이워보고자 노력한다.

11. **어휘** metabolic 신진대사의 / machinery 기계류, 기관, 구성 / analogous 유사한 / working 일의 추진에 필요한 / blueprint 청사진 / delicate 민감한 / weird 이상한 / similar 유사한 / novel 기발한, 참신한

정답 ③

해석 세포의 신진대사 기관은 스스로의 마스터 플랜과 일의 추진에 필요한 청사진, 전달 매체,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가진 채 완전히 유사한 방식으로 기능한다.

12. **어휘** biased 편견을 가진 / race 인종 / cover 뉴스로 보도하다, 포함하다 / cast 던지다 / charge 충전하다, (의무 등을) 과하다, 고발하다 / claim 청구하다, 주장하다

정답 ①

해석 * 많은 전문가들이 TV와 라디오가 너무 인종 문제를 공정하게 보도하는데 편견을 가졌다고 비판한다.

* 당신들에게서 2달 전에 이 타이어를 구매했습니다. 보증서가 수리비용을 포함하나요?

13. **어휘** entitle 자격을 주다

해설 ① : for fear that = lest (~할까 두려워서, ~하지 않도록) 뒤에 다시 부정어를 쓰면 이중부정이 된다. --> not 삭제 ② : the last person to do (~할 사람이 아니다) ③ : be entitled to do (~할 자격이 있다) ④ : A is one thing, B is another (A와 B는 별개다)

정답 ①

14. **어휘** urge 재촉하다 / undertake (일 등을) 맡다 / sacrifice 희생하다 (for)

해설 ① : 서술적으로 쓰인 최상급에는 정관사 the가 생략될 수 있다. ② : be[get] accustomed to -ing (~에 익숙하다) ③ : 분수 of the 복수명사 + 복수동사 ④ : urge 목 to do / which는 뒤에 완전한 문장을 취할 수 없는 관계대명사이다. 따라서 이를 '전치사 + 관계대명사'의 형태로 바꿔야 한다. 이때 전치사로 는 sacrifice와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for가 적절하다. --> for which

정답 ④

15. **어휘** progress 발전하다 / modify 변경하다 / vague 모호한 / to the effect that ~라는 뜻으로

해설 ① : there is no -ing (~할 수 없다) / how 형/부 S V (얼마나 ~할지) ② : 'have 목 p.p.' 일 때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는 수동이다. / 생존하는 것이지 무언가에 의해 생존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사인 survive를 써야 한다. 따라서 자동사 survive를 수동태로 쓸 이유가 없다. --> in order to survive ③ : have no choice but to do (~할 수 밖에 없다) ④ : to the effect

that (~라는 뜻으로)

정답 ②

16. **어휘** adoption 입양 / entrenched (생각 등이) 뿌리내린 / Confucian 유교의 / bloodline 혈통 / stigmatize 낙인을 찍다 /

해설 본문에 한국의 국제 입양법 준수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다. ① : (한국 문화는 미혼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② : (한국은 국제 입양법을 잘 준수한다.) ③ : (한국문화는 유교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④ : (미혼모들은 종종 경제적으로 아이들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정답 ②

해석 지난 60년 동안에 20만 명 이상의 한국 아기들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한국의 해외 입양은 한국 전쟁 직후인 1950년대에 시작되었다. 그때 이래로 해외 입양으로 보내진 아이들의 숫자는 한국에 깊이 뿌리내린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유교적 가치 때문에 증가해왔다. '미혼모에 낙인을 찍는 습관도 이에 크게 기인했다'고 사회학 교수인 Helen Roh가 말했다. '미혼모는 기본적으로 입양을 위해 아이들을 포기하도록 강요되었다'고 덧붙였다.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입양된 사람들의 90% 정도가 미혼모의 자녀들이라고 한다.

17. **어휘** strictly 정밀하게 / account 설명 / venture 모험, 우연 / hog 돼지 / navel 배꼽 / haunches 엉덩이, 허리 / clawless 발톱 / hen 암새 / beak 부리 / misbegotten 상스러운 / mule 노새 / camel 낙타 / whinny (말의 울음소리) 히힃 / reality 현실 / fantasy 공상, 환상 / history 역사 / science 과학

해설 엉덩이에 배꼽이 달린 돼지 등의 묘사는 모두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내용들이다. 따라서 이를 가장 잘 묘사한 단어는 fantasy(공상, 환상)이다.

정답 ②

해설 Magellan과 함께 처음으로 세계를 항해한 Florentine 출신 항해사 Antonio Pigafetta는 미국의 남부 지역을 통과하자마자 환상 속을 모험하는 것과 같은 굉장히 나름 정확한 설명을 기록해두었다. 그 안에 그는 엉덩이에 배꼽이 달린 돼지, 수컷의 등에 알을 낳은 발톱이 없는 새, 그리고 부리가 스폰처럼 생기면서도 혀가 없는 펠리컨을 닮은 새 등에 대해 써놓았다. 그는 머리와 귀는 노새와 같고, 몸은 낙타이며, 사슴의 다리를 하고는 있으나 우는 것은 말과 같은 상스러운 것에 대해서도 썼다.

18. **어휘** productivity 생산성 / capture 잡다 / preference 선호, 특별 / copyright 저작권 / patent 특허권 / minimum 최소의 / substantial 상당한 / attempt 시도하다 / hesitate 망설이다

해설 ㉠ : R&D 투자의 장점만이 언급된 상황이므로 상당한(substantial) 투자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 : 개인 투자의 단점을 설명한 후에 나오는 빈칸이다. 따라서 투자를 망설일(hesitate) 거라는 ㉣가 정답이다.

정답 ④

해설 연구 개발(R&D)에 하는 투자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새로운 상품과 절차를 생성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좋게 만들었다. 새로운 상품과 절차에서 이익

을 볼 가능성은 종종 사업체로 하여금 ㉠ 상당한 금액의 돈을 R&D에 투자하게 만든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그렇게 만들 어낸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도용될 수 있으므로 R&D 투 자의 많은 장점을 흡수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기업은, 전반적 으로 사회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대가가 나오는 쪽에는 ㉡ (투자를) 망설이게 될 것이다. 동기를 유발 하고 더 많은 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방 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에는 사기업의 R&D에 지원을 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 그리고 저작권과 특허제도를 통해 지 적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있다.

19. 어휘 excel 능가하다, 보다 낫다 / persistent 일관된 / in practice 실제로 / celebrated 저명한 / debunk 폭로하다, 가면을 벗기다 / mythology 신화 / rule of thumb 경험법칙, 경험치 / turn out 판명되다 / and yet 그럼에도 / go about 열심히 하다 / pursue 추구하다 / premise 전제 / sheer 단순한, 순전한 / predictor 예언자 / quality 질 / automated 자동화된 / deliberate 의도적인, 계획된 / planning 계획 / subconscious 무의식의 / accidental 우연한

해설 ㉠ : not A but B(A가 아니라 B다)에 의해 A(투자된 시 간)에 의미상 대비되는 단어인 ‘시간의 질(quality)’이 필요하 다. ㉡ : 단순한(automated) 시간 투자에 대해 비판적인 글이다. 따라서 준비된(deliberate) 시간 투자를 지지하는 선택지가 답 이다.

정답 ②

해설 남들을 넘어서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수십 년 동안 심리학자들의 관심사였고, 수세기 동안 철학자들 의 고민거리였다. 최근에 가장 일관되게 나오는 심리학적 주장 은 ‘1000 시간의 법칙’이다. 이는 어느 분야에서든 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실제로 투자를 해야 하는 시간을 나타 낸다. 하지만 저명한 Daniel Goleman은 이 인기 있는 경험치 뒤에는 더 많은 복잡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계속 발전하려면 그 비밀은 투자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의 ㉠ 질 이다. 이는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해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는 정규 교육과 많은 비공식적 부분이 기술이 필 요한 분야에서도 단순히 시간만 투자하라는 전제에서 쌓아지 고 있다. 대신 성공의 주요 예측수단으로 쓰인 것은 ㉡ 계획 적인 연습이다. 단순한 시간 투자가 아닌 종종 숙련된 전문가, 코치 또는 멘토가 도와주는 완전한 집중이 수반된 지속된 훈련 을 의미한다.

20. 어휘 disarmament 무장 해제, 군비 축소 / explosive 폭발하기 쉬운 / arms race 군비 경쟁 / somehow 어쨌든 / delivery 발사 / knock out 파괴하다 / conviction 확신, 유죄판결 / curb 억제하 다 / retaliate 복수하다 / force 설득력, 힘 / deterrence 억제, 전 쟁 억지력 / inaction 정지, 나태, 휴전 / sanction 제재 / reconciliation 화해 / philanthropy 박애

해설 글 전반적으로 공포감을 줄 만큼 군비를 증가시키고 이 에 의한 반사적 평화를 논하고 있다. 이러한 문맥에 가장 잘 어 울리는 선택지는 ①이다. ① : (공포를 통한 휴전) ② : (제재를 통한 평화) ③ : (박애주의를 통한 화해) ④ : (기습에 의한 자기

방어)

정답 ①

해설 군비 축소에 대한 언급을 마치기 전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 몇몇 저자들은 현재 폭발적으로 진행되는 군비 경쟁을 최소화 시키는 최적의 방식으로 어쨌든 일정한 공포감 을 조성하자고 한다. 이것은 굉장히 강하고 다양해서 어떤 기 습도 파괴할 수 없는 핵무기와 발사 시스템을 개발하자는 것이 다. 나는 이 논쟁에서 어떤 설득력을 볼 수 있다. 효과적인 전쟁 억지력은 일정 부분까지 다른 사람이 공격을 받으면 위협을 가 할 수 있고, (실제 위협을) 가하겠다는 상호간의 확신에 달려있 다. 그리고 이것이 어쨌면 당분간은 성급한 도발을 막는 유일 한 방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방식으로 안정을 도 모하는 것은 또한 계속 군비 경쟁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힘이 커지면,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기습 공격을 하게끔 더 진화된 무기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할 수 밖 에 없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이든 군비 억제제의 기초가 되는 기 습에 의한 자기 방어는 평화를 보장하는 좋은 방식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말이다. 나는 처칠이 한 때 언급했듯이 안전이 정말로 ‘두려움을 가진 힘이 센 아이’일 수 있을까에 대 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